



‘돈 멜초의 명성을 이어가는 한국 단독 출시 와인’

더 돈 2015

The Don 2015

지역	센트럴 밸리 > 마이포 밸리 > 푸엔테 알토		
포도품종	까베르네 소비뇽 88% 까베르네 프랑 5% 메를로 7% 쁘띠 베르도 0.2%		
알코올	14.5%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5~18℃		
테이스팅 노트	강렬한 레드 과실의 풍미와 블랙베리, 블랙 커런트의 향이 입안을 가득 채운다. 약간의 스파이스 노트는 와인이 단단함을 채워주고 실크와 같은 탄닌과 우아한 풍미가 조화를 이룬다.		
페어링 TIP	붉은 육류/ 단단한 치즈/ 훈제,염장 음식/ 밀가루 음식		



제품설명



롯데백화점의 고객을 위해 오직 2,400병만 생산되어 출시되는 더 돈은 돈 멜초 2015 빈티지의 까베르네 소비뇽 원액으로 스페셜 블랜딩을 통해 탄생한 와인이다. 특히 돈 멜초 2015 빈티지가 와인 스펙테이터 TOP 100, 96점에 선정되며 그 가치를 증명하였다면, 더 돈은 그 원액으로 전 세계 한국에서만 출시되어 그 품질에 대한 증명과 함께 유일한 가치가 더해진 와인이다.

와이너리



1883년 설립된 콘차이토로는 남미의 대표 와이너리로 현재 전세계 147개국에 수출 되고 있는 세계 시장을 선두하는 와이너리이다. 1997년 프랑스 특급 와인의 자존심인 샤토 무동 로실드의 바롱 필립 가문과 조인트 벤처로 알마비바를 출시하여 칠레 울트라 프리미엄 와인의 장을 연 콘차이토로는 10,800헥타르가 넘는 빈야드를 칠레 뿐 아니라 미국, 아르헨티나 등 다양한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또한 세계적인 전문지 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세계 최고의 존경 받는 와인 브랜드’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에는 최고의 와이너리에 등극하였다. 콘차이토로의 아이콘 와인인 돈 멜초는 세계적인 권위의 와인 전문지 100대 와인에 총 8번 선정되어 칠레 와인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으며, 플래그십 와인 까르민 데 페우모는 칠레 와인 중 로버트 파커 최고 점수 97점을 받은 와인이다. 이렇듯 콘차이토로는 최고급 와인부터 트리오, 프론테라 같은 합리적인 가격대의 와인까지 전세계 와인 애호가들의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 와이너리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뒤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